

【붙임】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통·폐합 승인 통보서

① 승인 내용

- 통·폐합 시기 : 2023. 3. 1.
- 통합대학 교명 : 한경국립대학교
- (총장) 통합대학 총장은 현 한경대학교 총장이 되며, 현 한국복지대학교총장은 평택캠퍼스 부총장이 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 통합대학은 ‘한경대학교’, 통합되는 대학은 ‘한국복지대학교’
- 대학본부 : 안성캠퍼스에 두고, 안성캠퍼스에 6과 1행정실, 평택캠퍼스에 1과(장애인학생지원과) 1행정실 배치
- 행정조직 : 3처(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1국(사무국), 1단(산학협력단), 7과 2행정실

통합 전		통합 후
한경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총장1, (부총장1) 3처 1국, 1단 6과 3행정실	총장1, 4처* (*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총무처)	총장1, 부총장 2, 3처, 1단, 1국, 7과 2행정실

※ 한경대학교는 부총장을 두는 근거가 있어도 두지 않았으나, 통합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성·평택 캠퍼스에 각각 부총장을 둠

- 학사조직 : 학부 18, 대학원 4(일반 1/특수 3)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한경대	한국복지대	계	통합대학교	통폐합 실적	비고
학과	-	13	13	-	△13	
학부	13	1	14	18	+4	
일반대학원	1	-	1	1	-	
특수대학원	3	-	3	3	-	

- 입학정원('23) : 1,271명(한경대 1,087명(야간 46명 포함), 한국복지대 184명)
※ 한국복지대(3년제 전문대)의 '18년도 입학정원 211명(비장애인 127명, 장애인 84명) 중 비장애인 정원 127명의 40.2%인 51명, 자체 20명 감축

- 한국복지대학교의 존속기간 : 통·폐합 후 '28. 2월말까지 존속
 - 교직원 : 통합 이전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통합대학교 소속의 교직원으로 봄
 - 재학생 및 휴학생 보호대책
 - '22. 3월 입학생까지는 학제 존속기간(한경대학교는 '28.2월, 5년제인 건축학과는 '29.2월, 한국복지대학교는 '28.2월)동안 입학학과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학적 변동 없이 졸업연도까지 보호함
 - 한경대학교로 입학한 학생은 통합대학에 입학할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한경대학교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는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 졸업 가능
 - 한국복지대학교로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한국복지대학교 규정 적용, 정당한 사유로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통합대학에 각각 편입학
- ※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② 승인 이행 조건

- 통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대학통합 신청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통폐합 이행 4개년 계획서('23~'26)」와 「'23년 이행계획」을 '23. 2월 내 마련·제출

* 국립대의 공공성 측면에서 실천적인 목표,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계획, 특성화 수행을 위한 조직·정원 운용, 효율적 재정 투자·배분·활용, 자체 성과목표의 상향조정 등 성과체계 개편 등 통합 목적 실현을 위한 체계적,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 '24년부터는 통폐합 이행 4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직전년도 이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해당연도 이행계획서를 2월말까지 제출
- 장애인 관련 전문대(3년제)와 일반대(4년제)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등 학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을 '23. 2월까지 사전 마련 필요

- 통합대학 학칙 마련(개정)을 위해 양 대학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대학통합 신청서」(‘21.1월 신청계획, ‘22.3월 수정계획)에 따라 학칙 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23년 2월말까지 학칙 마련
- 「대학통합 신청서」(‘21.1.18.)와 「통폐합 이행 4개년 계획서(‘23~‘26)」의 이행을 위해 자체 점검 및 관리감독 기구(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평가 관리체계 정비 및 내실화 추진
- 연도별 이행 계획, 정책 제언 및 기타 승인 이행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

③ 행정 사항

- 한경국립대학교는 「통·폐합 이행 4개년 계획서(‘23~‘26)」와 “‘23년 이행계획”을 ‘23. 2월 내 제출
- 통합대학 학칙은 ‘23. 2월말까지 마련·제출
- 「대학통합 신청서」 및 「통·폐합 이행 4개년 계획」의 이행 점검 및 관리 감독 기구 구성 현황 제출(기구 구성 후 15일 이내)
- 통·폐합 계획 이행 담보를 위한 ‘교육부-통합대학 간 통·폐합 이행 협약’ 체결 : ‘23. 2월까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등과 협의하도록 함

첨부 : 1. 학과·학부 개편 내용 및 입학정원
 2. 심사위원 정책 제언

붙임 1

통합대학 학과·학부 개편 내용 및 입학정원

(단위 : 명)

통합 전 한경대(21)			통합 전 한국복지대(21)		통합 후 한경국립대학교(23)			증감			
학부명	전공명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전공명	입학정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	80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	80	-			
	영미언어문화전공					영미언어문화전공					
	공공행정전공					공공행정전공					
법경영학부	법학전공	82			법경영학부	법학전공	82	-			
	경영학전공					경영학전공					
웰니스산업융합학부	의류산업학전공	86			웰니스산업융합학부	의류산업학전공	86	-			
	아동가족복지학전공					아동가족복지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웰니스스포츠과학전공					웰니스스포츠과학전공					
식물자원조경학부	식물생명환경전공	92			식물자원조경학부	식물생명환경전공	92	-			
	조경학전공					조경학전공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자원과학전공	65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65	-			
	생물산업응용전공					동물응용과학전공					
생명공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61			생명공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61	-			
	응용생명공학전공					응용생명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야:20)	101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 (야:20)	101	-			
	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전공	77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안전공학전공	77	-			
	안전시스템공학전공					지역자원시스템공학전공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야:26)	115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야:26)	115	-			
	화학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컴퓨터응용수학부	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전공	73	컴퓨터정보안과	20	컴퓨터응용수학부	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전공	73	▽6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응용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					
ICT로봇기계공학부	ICT로봇공학전공	80			ICT로봇기계공학부	ICT로봇공학전공	80	-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80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80	-			
	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디자인건축융합학부	디자인전공	55	유니버설건축과	8	디자인건축융합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	55	▽15			
	건축학전공	17				건축학전공	23				
	건축공학전공	17				건축공학전공	17				
			유니버설디자인과	30		제품공간디자인전공	17				
						사회복지과	15		재활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3
						한국수어교육원과	15			한국수어교육전공	13
						유아특수보육과	17			유아특수보육학전공	14
의료보장구과	23	의료보장구학전공	15								
						모던음악과	15	▽6			
						귀금속보석공예과	18		창의예술학부	모던음악학전공	13
						귀금속보석공예전공	14				
						창의자율전공학부	4		창의자율전공학부	2	
						공공행정과	16	▽7			
						장애상담심리과	15		사회통합학부	공공행정전공	13
						장애인레저스포츠과	15			장애상담심리학전공	13
						장애인레저스포츠학전공	13				
						Si반도체융합과	50		Si반도체융합학부	Si반도체융합전공	30
합 계	1,081(야간 46명 포함)			261		1,271(야간 46명 포함)		▽71			

※ () : 야간 모집전공 및 인원

1. 대학 통·폐합의 목적

-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의 통·폐합은 대·내외적인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규모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임. 이에 국립대 구조개혁 관점에서 통합대학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통합대학의 예산 절감 효과 및 행정조직의 효율화,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의 적절성 등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두 대학의 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통합대학의 운영 재정은 다른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낮은 규모로 예상됨. 향후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개혁과 도전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함
- 통합대학은 ‘웰니스 산업 융합 특성화 대학’, ‘미래융합산업·기술 특성화 대학’, ‘장애인 통합 고등교육 거점대학’을 특성화 목표로 수립하여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및 공공성 실현에 방점을 둠으로써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 정도가 높은 편임
- 통합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 전략은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되어 다소 추상적이므로 보다 실천적인 목표 수립과 정량적 성과지표 마련 등 추진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특히, 특성화 목표와 세부 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특화분야를 기반으로 한 시너지 창출 및 통합대학의 미래 비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통합대학 교명으로 최초 제출한 ‘경기국립대학교’와 ‘경인국립대학교’는 기존 유사 명칭으로 인한 혼란 야기, 타 대학과의 분쟁 소지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했고, 기존 타 통합대학의 교명 변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대학의 인지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교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으며, 통합 과정에서 대다수 통합대학이 기존 교명을 활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나 분쟁의 여지가 낮고 대학 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통합대학에서 제시한 ‘한경국립대학교’라는 교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대학 통·폐합의 내용

- 양 대학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통합신청 당시 2021년 1,342명(한경대학교 1,081명, 한국복지대학교 261명)에서 통합 후 1,271명으로 통·폐합에 따라 51명을 감축하고, 자체조정으로 20명을 감축한 것은 적정하나, 향후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캠퍼스별 특성화에 기반한 정원 조정에 대한 전략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함
- 통·폐합 대학의 캠퍼스별 특성화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양 대학교육, 연구, 조직 등의 화학적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특성화의 학문적, 사회적, 지역적, 경제적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조직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정 등이 필요함
- 대학 통·폐합에 따른 학과의 변동, 캠퍼스 간의 특성화 전략, 이동 및 재배치 등은 혁신적인 부분임. 이에, 소극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으로는 이러한 큰 변화의 추이를 지원하고 적응하기에는 외부 환경 변화 측면에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합 후 대학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캠퍼스별 특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확보해야 할 부분임
- 각각의 캠퍼스가 통합·연계된 의사결정 및 행정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 대학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거버넌스 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통합대학 부총장 선임제도 개선과 행·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합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에 따른 국제화 조직정비,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등에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현재의 국제화 조직 및 조직개편 방안은 통합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엔 조직, 인력, 전문성 및 예산 등의 구체성이 미흡함. 따라서, 통합대학이 국제화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 및 예산, 전문인력 운영 방안이 필요함

- 통합대학이 4차 산업 시대 복지융합분야 인재양성을 주도하는 장애인 고등 교육 거점대학으로서 한국형 장애인 고등교육 모델을 선도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한 특성화 추진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안성캠퍼스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단계적 조치, 장애·비장애학생이 융화될 수 있는 환경·문화 조성이 필요함
- 통합대학의 학사구조는 4년제 학부제 체제로 개편하고 유사·중복학과(전공)의 통합협의를 완료되었으나, 전공 명칭은 변화하는 환경·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장애학생의 정원 유지 및 전공 선택권 확대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 고등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장애학생의 수학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전공 개설·운영과 통합 전에 한국 복지대에서 운영하던 우수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능력개발원 등에서 적극 발굴하여 장애 특성화대학으로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 운영방안 모색 필요

3. 대학 통·폐합의 추진과정

- 양 대학의 통합대학교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원, 직원, 학생, 동창회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를 통해 교수회의 및 대학평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되어 공감대가 높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안성시 및 시민단체의 최초 통합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꾸준한 소통 노력을 통해 도출된 안성시와의 확약 사항에 대해 통합대학은 지역사회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통합대학이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성장하고자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거점 국립대학 추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 필요성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과정은 고무적이나 시민단체와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통·폐합 추진과정 중 양 대학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지역 전략산업 분석 및 미래사회 변화 요구를 기반으로 통합대학의 비전 및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것은 적정해 보이나 통합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목표와 실천 전략의 달성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수요분석, 지역사회 환경 및 다양한 여건 분석 등에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통합대학과 지역사회(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연계 협력방안으로 산·학·민·관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며,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대학이 추구하는 목적과 특성화 발전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학과 지역의 모든 사회단체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통·폐합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나 절차는 적절해 보이나, 대학 통·폐합 계획에는 통·폐합을 위한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캠퍼스 특성화 방향 및 전략 마련 과정, 학부의 전공 간 차별화, 통합대학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예상 위험 요인 및 극복방안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대학 통·폐합의 기대효과

(1)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측면

- 통합의 정책적 효과로서 (대학차원) 대학경쟁력 강화, 상생적 산학협력, 특성화 시너지, (지역차원) 지역인재양성, 고등교육기회 확대, 지역 거점 통합교육 역할 강화, (국가차원) 산업고도화 추진, 지역발전, 포용적 통합사회 등의 정성적 효과 외에 대학, 지역, 국가 차원의 정량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
- 향후 통합대학과 지역이 궁극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통합대학과 지자체, 지역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타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향후 통합대학이 지자체, 지역산업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구소, 타 지역 대학 등 지역혁신 주체 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통합대학과 지역이 궁극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2) 대학의 교육의 질 개선 및 연구역량 강화 측면

-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통합대학이 추가로 설정한 교육 및 연구의 정량적 개선 목표는 대체로 도전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은 도전적인 성과목표 값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공 단위별, 대학 행정 단위별 실천전략 및 성과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대학의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와 아울러 경기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연구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 특히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연구비 확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통한 연구비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대학 내부적으로는 50~60세 연령이 대부분인 교원의 연령분포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연구업적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실적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진교원의 세대교체를 통한 연구실적 제고 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대학운영 효율화 및 경영 합리화 측면

- 본부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학과 감축에 의한 운영비 절감(보직수행경비 절감) 및 사업비 절감 외에도 본부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 학부제 통합 운영을 통한 운영비 절감 등의 예산 절감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학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서 대학 홍보 및 입시 업무 통합 운영을 통한 경비 절감, 중복되는 도서 및 전자저널의 구입비용 최소화를 통한 경비 절감, 실험실습기자재 및 전산장비 통합 운영에 의한 경비 절감 등의 예산절감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통합대학의 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물리적 교육환경 개선 등 H/W와 S/W에 대한 균형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통·폐합사업 소요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 대학 육성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의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적인 자원조달 노력 및 예산 효율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대학 특성화의 적절성

- 현재와 미래시대에는 대학과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 등과의 다양한 연계 체계를 가지고 논의와 협의에 기반한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도출하고,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정주형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 이에,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지역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통합 후 이에 대한 전담조직 혹은 부서를 설치해 지자체와 심도있고 지속 가능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실현 노력이 필요함
- 통합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 투자계획 내용에 있어 재정의 한계로 인한 폭넓고 획기적인 투자계획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음. 하지만, 특성화 계획을 보면 통합대학 전체 재정비 계획이 나타나 있음. 이에, 통합대학의 재정비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이므로, 특성화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도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통합대학 학부 체계에서 안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의 학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유사학과의 정리 및 재배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